이덕일의 '역사의 창'

봄날 단상(斷想)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봄이 기쁜 것은 꽃과 함께 오기 때문이다. 봄꽃을 춘화(春花)라고 하지만 화려하다는 뜻에서 춘화(春華)라고도 한다. 그러나 봄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월사 이정귀는 "저도에 봄꽃은 피고 또 지는데/ 술집 아래 황공이 몇 번이나 생각나랴(楮島春花開又落/幾回壚下憶黃公)"라는 시구를 지었다. 황공(黃公)은 황공주로(黃公酒壚)의 줄임말로서 옛 친구들과 놀던 선술집을 뜻한다. 삼국을 통일한 진(晉)은 크게 번성했지만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세상과 연을 끊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이 나타났다.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왕융(王戎)이 상서령(尙書令)이 되어서 황공주로 앞을 지나면서 수레 뒤에 탄 사람에게, "내가 옛날 혜강(嵇康)·완적(阮籍) 등과 함께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죽림(竹林)에서 놀았었다. 혜강과 완적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세속에 몸이 묶여 지내고 있다. 오늘 이곳을 보니 거리는 비록 가까우나 산하가 가로놓인 듯 아득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왕융은 죽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돈에 집착해서 상아로 만든 주판인 아주(牙籌)를 쥐고 밤낮 돈을 세었다. 그래서 혜강과 완적 등은 죽림에서 술을 마시다가 왕융이 오면 "속물이 또 와서 사람의 흥을 깬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고사가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온다.

죽림칠현 중에 가장 고고했던 인물이 혜강이었다. 그는 조조(曹操)가 세운 위(魏)나라 출신이었고, 조조의 증손녀 장락공주와 혼인해서 중산대부(中散大夫)가 되어서 '혜중산(嵇中散)'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사마씨(司馬氏)가 위의 국정을 장악하자 벼슬을 거부하고 은거해서 지조를 지켰다. 권력자인 대사마(大司馬) 종회(鍾會)가 찾아왔으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종회의 모함에 빠져서 사후 진(晉)의 태조로 추숭되는 당시의 대장군 사마소(司馬昭)에 의해 처형당했다. 혜강은 단두대에서 마지막으로 광릉산(廣陵散)을 연주했는데 연주가 끝난 후 "원효(袁孝) 스님이 일찍이 광릉산을 배우려고 했는데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광릉산은 지금부터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한 것이 광릉산이 전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영혼을 현실의 권력은 용납하지 않았다. 몸은 죽었지만 혜강은 정신이 자유로웠던 진정 죽림지사였다.

조선의 송강 정철은 선조 13년(1580)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 받고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운운하는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었다. 그러나 죽림에 눕고 싶다던 말과는 달리 선조 22년(1589) 정여립 사건을 다스리면서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실제 마음은 죽림과는 멀었다. 마음만은 죽림이고자 했던 대표적 인물이 세조 때의 권신 한명회다. 한명회는 수양대군과 함께 단종 1년(1453)의 계유정변 때 김종서 등을 죽이고 세조 2년(1456) 상왕 단종 복위기도사건(사육신 사건) 때 2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가 한강가 풍광 좋은 곳에 '백구가 희롱한다'는 뜻의 압구정(狎鷗亭)을 짓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지어 칭송했다. 그런데 판사 최경지(崔敬止)는 "가슴 속 서린 기심(機心:책략을 꾸미는 마음) 고요해지면/ 벼슬 바다 위에서도 갈매기와 친해질 수 있으리(胸中自有機心靜/宦海前頭可狎鷗)"라고 풍자했고, 한명회가 그의 시는 현판으로 달지 않았다고 '추강냉화'는 전한다. 벼슬하지 않은 포의 이윤종은 압구정 아래를 지나다가 "정자가 있으나 돌아가지 않으니/ 참으로 이 인간은 갓 씌운 원숭이로구나(有亭不歸去/人間眞沐猴)"라고 조롱했다.

이런저런 인간사에도 불구하고 봄날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고려인 이규보는 "그대는 봄 동산의 풍성한 살구와 복숭아를 보지 못했는가/ 모두 하늘이 만든 재주 아닌가/ 이처럼 꽃다운 시절에 미친 듯이 읊어나 보세(君不見春園富貴紅杏與緋桃/無奈天工費剪刀/芳辰若此宜狂吟)"라고 노래했다. 봄날이 얼마나 가랴. 이규보처럼 즐겨보자.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의대 증원 해법을 위한 5대 방안

정명호
전남대의대 순환기내과 명예교수
광주보훈병원 순환기내과 부장

지난 40여 년간 필수의료인 순환기내과 교수로 근무해왔다. 특히 막힌 심장혈관으로 인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증을 치료하는 심장혈관중재술을 전공한 후 올해 2월에 정년퇴임하고 현재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1987년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전남대병원에서 전임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내과 전문의만 취득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학병원에서 무급으로 근무하며 심장중재술을 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협심증·심근경색증 환자들을 심장중재술로 치료하면서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의사로서 위급한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으로 힘든 세월을 견뎌 낼 수 있었다.

심장병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수를 다녀왔다. 1996년부터 밤이나 주말에는 돼지 심장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치료법 연구에 매진해 현재까지 '3730마리'라는 세계 최다 돼지 심장실험을 진행해 새로운 심장병 치료법을 개발했다. 2005년부터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를 시작해 심근경색증 분야에서 가장 많은 430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작성한 논문은 1979편, 특허 84건, 저서 96권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필수의료를 지켜왔지만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교수들이 사직을 하는 현실을 보며 무척 허탈한 마음뿐이다. 하루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길 기원하며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꾀해야 한다. 무급 전임의를 하면서도 환자를 돕는다는 보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절을 견뎌 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젊은 의사들은 심장혈관중재술을 회피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떠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심장혈관중재술 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1/10 정도로 성형술보다 적고, 의료 분쟁 리스크는 아주 크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수가 및 당직비에 대한 배려와 의료분쟁 발생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의대 졸업생 3000명 중 기초의학인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모두가 임상 분야를 선택하고 그 중 임상교수가 되더라도 기초 및 중개연구를 하는 임상의사는 거의 없다.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와 연구하는 임상의사를 육성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도, 의학발전을 꾀할 수도 없다.

셋째, 국립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의 80% 이상이 복지 예산이며, 보건 예산은 20%에 불과하다. 보건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해 국립대학병원 및 보훈병원과 같은 국립병원의 시설 투자 및 우수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이 적어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립병원보다 우수해야 하며, 국립의대 장학금을 확대해 우수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

넷째, 국토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프라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탓에 지방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 학교 설립 등 지역간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의사들이 지방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섯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단계적으로 오랜 시간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동안 의사를 20% 늘려 9000명이 됐다고 한다. 우리도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릴 계획이라면 일본처럼 의료현황을 파악해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면 더욱 좋겠다. 특히 일본처럼 의사협회와 대화를 통해 적정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듯 싶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등 좋은 의료복지 제도를 갖춘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인 국가다. 지난 40년간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임을 한 후에도 국립병원인 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현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빠른 시일 내 의료 문제가 해결돼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의학연구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

기 고

비엔나의 사회주택정책, 그리고 광주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루프탑 수영장과 사우나, 유치원과 병원까지 있는 호텔 같은 아파트가 반값 주택이다. 시민 5명 중 3명이 사회주택에 임대로 산다. 시가 토지를 계속 사들이고 주택 건축비의 많은 부분을 낮은 이자에 대출해서 임대료를 유럽 도시의 반값으로 공급한다. 소득 수준 80%까지 사회주택을 임대할 수 있고 한 아파트 안에서도 어느 집이 자가이고 어느 집이 임대인지 알 수 없게 사회통합을 추진한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이야기다.

광주시가 그대로 따라한다면 사회주택에 관한 장기적 정책을 세우고 두 가지 방법으로 주택을 만들어 저렴하게 임대하면 된다. 첫 번째는 도시공사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 등 모든 면에서 품질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건축적 품질, 디자인,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현상 설계 공모에서 1등을 한 사회적 기업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비엔나의 사회주택에서 인상적인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사회주택은 사회민주당의 100년 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전체로는 25%, 네덜란드는 34%가 사회주택에 살고 있다. 또 하나는 공공과 민간, 주체는 다르지만 둘 다 공공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입지에 좋은 집을 지어 적정한 가격에 임대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원하면 평생 임대할 수 있고 자녀가 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한국과 오스트리아, 광주와 비엔나는 상황이 다르다. 집을 주거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문화와 투자 대상이자 상품으로 생각하는 차이도 있다. 하지만 거품이 가득 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 전세 사기에 늘 불안한 서민들을 생각하고, 부동산 투기 광풍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대다수 시민들을 생각하면 소박하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삶의 안정을 지원하는 일은 정부의 책무가 아닐까.

먼저 광주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비엔나나 유럽의 다른 도시들처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사업으로 모양만 베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이나 공공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를 꾸준히 확보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 또 다른 모델로 뜻있는 시민들이 돈을 모아 통합형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을 만들고자 할 때 도시공사가 협업할 수도 있다.

광산구를 살펴보면 신규 택지지구를 빼면 오래된 지역의 주건 환경 개선이 숙제다. 전국적으로 1인 주거 비율이 42%, 광산구가 37%인데 광산구 우산동은 49%로 계속 늘고 있다. 노후 지역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1인 주거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매입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입주를 늘리면서 물리적 공간의 재생과 주민들의 건강 활동, 통합 돌봄 정책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빈집은 늘어나는데 팔지 않아 새로운 주민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도시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귀촌과 농촌 지역의 재생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겠다. 도시 농업 공동 텃밭과 직거래 등 도농 교류를 늘려 농촌의 활력과 도시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순환경제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동네 가게마다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 현수막이 늘고 있다. 길과 공원, 광장, 공공건축 등 공유지의 회복과 재생이 공공의 역할이다.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을 줄여 보행로와 자전거길, 공원을 늘리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걷는 길이 편하고 아름다워지면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으로 전환과 회복이 세계적 화두다. 도시마다 물리적인 공간의 재생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 경제적 전환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공간이 사람들의 활동과 관계를 생성하고, 시민들의 활동과 관계망이 도시를 바꾼다. 선거가 한창인데 정치가들의 첫 번째 임무는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늘 예산은 부족하다. 부족함을 채우는 힘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민참여에 있다.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해야 길이 열린다.

社說

전남 단일의대 설립…동서 지역갈등 없어야

전남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2개 대학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의대' 방식에서 1개 대학에 신설하는 '단일 의대'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도민 담화문을 통해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한 개 의대로 추진하려던 방식을 접고 대학 한 곳을 골라 의대를 신설하는 단일 의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그러면서 공모 방식으로 단일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는 정례 조회 자리에서 공모를 통한 대학 선정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통합 의대 대신 단일 의대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정부의 요구와 오는 5월 학교별 의대 모집 정원이 조정된다는 시간적 한계 때문이다. 전남도는 국립 의대를 2026학년도에 거점 국립대 정원 수준인 2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남권 국립 의대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신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데다 의대 증원 문제와 연계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30년 숙원'이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공모 방식으로 단일 의대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국립 의대 설립에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 과정에 잡음이 생긴다면 동·서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제 목포에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김 지사의 공모 방식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벌써부터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단일 의대 추진은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한다.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않으려면 지역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노출돼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전남도는 공모 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 정치권도 쓸데없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길 바란다.

정부 조사서도 밝혀진 5·18 계엄군 성폭력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전남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력 범죄가 정부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 온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의혹이 공식 조사로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성폭력 피해 의혹 사건 52건 중 조사거부·사망 등을 제외한 19건(명)의 사건을 조사해 16건을 진상규명 사안으로 결정했다. 중복 피해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는 9건, 강제추행은 5건, 성고문은 1건, 성적 모욕 및 학대는 6건, 재생산폭력(유산, 자궁적출, 강간 후 임신이나 임신중절 등)은 3건 등이었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건 중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트라우마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례도 8건에 달했다.

계엄군의 성폭행은 고등학생, 임신부도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이뤄졌으며 집단 성폭행도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지휘 체계를 통한 조직적인 성추행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밝혀졌다. 계엄군이 시위대 체포와 호송 및 관리, 가택수색과 임시검문 등 수 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는 상황에서 2~5명의 인원이 가해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만행이 공식 조사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진상규명 결정된 16건 중 합의로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근거가 미약한데도 표결로 진상규명 처리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폭력'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소수 의견이라지만 이들의 역사의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無等鼓

엄마들의 자수꽃

제목이 눈길을 끌었던 '쓰지 않으면 죽을 거 같아서'(글항아리)의 저자 이혜숙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광주에서 꽤 알려진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일하는 짬짬이 글을 쓰며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인상적이었던 그의 글처럼, 손님들을 위해 한끼 식사를 차려내는 정성스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이씨가 얼마 전 펴낸 책 '계절을 먹다'(글항아리)를 읽으며 그의 말처럼, '쉬면 못 사는 몸을 가진 어머니들'과 그 시절의 음식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가 맛깔스런 남도말로 들려주는 70년에 걸친 음식 이야기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틋함이다. 그는 떡을 먹을 때나 고구마를 먹을 때나 언제나 함께였던 "싱건지는 위로였다"고 말한다. "국물이나 거석을 더 넣어 누구도 맛 못보는 사람이 없게 했던" 엄마를 떠올리며 자신을 위해 무한정 고무마 순을 벗기던 모습도 추억한다. 홍어애국, 열무지, 병어조림, 멸치젓, 물천어 지짐 등 책 속에 등장하는 음식에는 숱한 사연이 담겼다.

가족과 동네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낸 엄마들의 또 다른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전시에 다녀왔다. 수만점의 민속품을 소장하고 있는 비움박물관의 '철부지 문명의 봄, 한국전통문화 자수꽃 피다'전(4월 30일까지)이다. 전시에는 밥상보, 베갯모, 수건, 방석보, 인두판 등 어머니들이 일일이 손으로 수놓은 자수 작품 수백점이 나왔다. 온갖 꽃과 나무, 새 등 다양한 소재를 오색실로 수놓은 작품은 더 없이 아름답다.

친숙한 밥상보와 베갯모를 보며 작은 소품 하나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수를 놓았던 어머니들의 마음을 생각했다. '계절을 먹다' 속에 등장하는, 농한기 눈오는 날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가 함께 모여 바느질을 하는 모습도 절로 떠올랐다. 박물관 이영화 관장은 "밥 짓고 옷 짓고 복 짓던 가난한 어머니는 아름다움의 창조자"라고 말했다.

전시된 것 중 새 것은 없다. 버려진 것들을 다듬고 고치고 일일이 다림질해 내놓았다. 오래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사방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중이다. 비움박물관에 핀 꽃들도 만나러 가보자.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